



나주읍성

옛 나주잠사 리모델링 내년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나주읍성 고살길 활성화 스토리북 제작 등 관광상품화

문화재 주변 대대적 정비 인문학 강좌 등 문화 숨쉬게



산뜻하게 정비된 서성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나주잠사

목사골 원도심의 변신... 활기 넘치는 역사관광도시로

각종 공모사업 선정... 나주읍성 주변 새단장 탄력

나주시 나주읍성 주변의 옛 도심이 새 단장 된다. 나주읍성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주요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 각종 공모에 선정돼 탄력을 받게 됐다.

◇옛 잠사공장 '폐산업시설 문화자원화' =나주의 옛 잠사공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폐산업시설 문화자원화' 사업에 선정돼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시는 옛 잠사공장 부지 4637㎡에 남아 있는 건조시설과 창고, 고지보관소와 굴뚝이 등 건물 6동을 총 사업비 49억여원을 들여 2015년 6월까지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옛 잠사공장은 리모델링 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지난 1910년 일본인이 설립한 나주잠사공장은 한때 1000명 넘게 근무했지만 1973년 오일 쇼크로 이후 잠사 사업이 쇠락하기 시작했다.시는 문화재생의 기본방향을 ▲점진적인 장소재생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화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

생하며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휴먼웨어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적 문제 해결에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공간으로 설정했다.

◇'꼭짓도시 만들기사업'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 =최근 나주시의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꼭짓도시 만들기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은 도시가 보유한 독특한 자원과 관광거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중세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즐거움을 제공하여 도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014년도 2차 사업공모에는 전국 15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전남에서 나주시가 선정됐다. 선정내용으로는 구 나주잠사 리모델링 8억원, 고살길 조성 및 스토리북 제작 및 앱 개발을 위해 8억원, 문화예술 콘서트 4억원으로 총 18억원이다.

시는 옛 나주잠사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방문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최근 금성관에서 풍류콘서트가 열려 방학을 맞은 학생과 시민들이 흥겨운 우리 가락을 들으며 깊어가는 여름밤을 만끽했다.

(나주시청 제공)

활용하여 도심권의 부족한 숙박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 '나주읍성 고살길 마실거리'를 위한 스토리북 제작하는 등 2015년까지 관광상품화 출시할 계획이다.

◇원도심 문화재 주변 '관리계획 시범지역' =나주읍성은 둘레 3.7km에 달하고, 조선시대 5대 읍성 중 하나였다. 성내외에는 현재까지도 20개소의 지정문화재가 밀집돼 있어 우리나라 중세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이다.

옛 나주목 관아가 있었던 원도심 지역의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원도심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및 동의

등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국토계획법·건축법 등과의 상충현상을 없애고 이중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해왔다.

원도심은 나주목관아와 읍성, 나주향교 등 많은 보물급 문화재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됐다.

◇나주향교 인문학 월례 강좌 =나주향교를 지역 재생 발전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나주향교 인문학 월례 강좌'도 열리고 있다.

월례 강좌는 원도심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로 되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주향교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는 인문학 강좌는 고전, 역사, 철학,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해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나주원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교육 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열리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지난 7월부터 매일 한 번씩 릴레이특강 형식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일 넷째 주 목요일 저녁에 열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가 즐겁고 활기 넘치는 역사관광도시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역 정차 KTX 열차 하루 4회 증차

나주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편이 일일 4회 증차됐다.

코레일 광주본부 "지난 18일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요 증가와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용산역 또는 인천공항역까지 오가는 KTX의 나주 정차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일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되던 나주역 정차 횟수는 상·하행 각각 6회로 늘었다.

강인규 나주시장과 코레일 광주본부 나주역 관계자들은 증차된 기차가 첫 운행한 18일 나주역에서 상·하행 증편 열차 이용객 중 한 명씩을 선정해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상행선 KTX의 나주역 출발 시각은 오

전 6시 31분, 오전 8시 27분(증편), 오전 10시 17분, 오후 4시 32분, 오후 6시 57분(증편), 오후 7시 57분이다.

또 하행선 KTX는 오전 8시 19분(증편), 오전 10시 25분, 오후 2시, 오후 6시 17분, 오후 7시 54분(증편), 오후 9시 20분에 나주역을 경유한다.

이 가운데 오전 10시 17분 상행선과 오후 7시 54분 하행선 열차는 각각 인천공항이 종착역이거나 출발지이다.

올 2·4분기 나주역 이용객은 3만4168명으로 1·4분기 2만8286명에 비해 20.7% 늘었다. 이는 올 상반기에 근무를 본격화한 농식품 공무원교육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기관 이전시기와 맞물린 점을 고려할 때 연계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강인규 시장은 "KTX의 나주역 정차 증편을 계기로 나주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강인규 나주시장(오른쪽)이 김성모 나주관리역장(가운데)과 함께 18일 증차된 열차에서 내린 승객에게 기념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분석된다. 강인규 시장은 "KTX의 나주역 정차 증편을 계기로 나주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배 해외수출 본격화 올해 3000t 계획

올해 나주배 해외 수출이 본격화됐다. 20일 나주시와 나주배 원예농협에 따르면 올해 나주 배를 해외시장에 지난해 대비 16% 늘린 3000t을 수출할 계획이다.

나주배 원협은 최근 나주배 유통센터 수출 선과장에서 올해 수출한 나주 배 첫 대미(對美) 수출 기념행사를 갖고 올해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다. 첫 미국 수출물량은 원황배 95t(컨테이너 7대·2100박스) 규모이다.

시는 올해 나주배 원협, 전남대 배수출 연구사업단 등과 함께 수출 맞춤형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나주 배 수출 전문단지 141ha를 조성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배는 국제 우수농산물 관리인증(Global GAP)



나주배 원협 관계자와 재배농가들이 최근 나주배원협 수출 선과장에서 열린 '2014년산 나주 배 대미수출 첫 선적 기념행사'에서 테이블프를 자르고 있다.

을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해마다 수출국 다변화와 현지인 소비판매 촉진을 위해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나주 배의 우수성을 알리는 판촉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시는 현지인 구매 취향에 맞는 3kg 상자, 3팩 등 다양한 소포장을 개발하는 등 전략적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민흥	267-4748
백선	673-4698
동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월출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항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